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청사 첫 조직개편 윤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3개 청사·4부시장 체제를 운영하는 첫 조직개편안 공개하고 본격적인 조직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시·의회 정책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민형배 시장과 황기연·고광안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 14일 특별시의회와 의 정책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설명했다.

광주특별시가 노사 합의 과정에서 조율한 조직개편안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지난 한달간 공무원 노조 등과 협의해 만든 조직개편안으로, 광주청사는 기획·정부 중심, 무안청사는 예산·행정, 동부청사는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가직 2명, 지방직 2명의 부시장을 두며 행정안전 부시장은 광주청사에, 균형발전 부시장과 기본사회부시장은 무안청사에, 산업경제부시장은 동부청사에 배치된다는 안이다.

본청 조직은 4실·8본부·27국·144과·담당관 체제로 꾸려진다. 통합 직후 임시 운영 중인 현행 조직보다 본부 1개와 국 3개, 과·담당관 5개가 늘어난다.

시장 직속으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담당할 반도체실이 신설되고, 시장상황실과 투자기구설립추진단을 둔다는 구상이 담겼다.

현재 3급 국장이 이끄는 국급 임시기구인 반도체산업지원단을 1급 실장이 이끄는 반도체실로 확대·재편한다. 산하에는

광주·기획·정부, 무안·예산·행정, 동부·산업 중심 공개 4부시장 기능별 분담...4실·8본부·27국·144과·담당관 시장직속 반도체 신설...광주 67과·무안 56과·동부 21과

반도체산업정책관을 둔다. 민형배 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직접 챙길 것이라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장 4명이 기능별로 업무를 나눠 맡고 관련 부서를 광주·무안·동부청사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시장 명칭은 아직 가칭이다.

행정안전부시장 아래에는 인사정책관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예술본

부, 기후환경본부, 광역행정본부, 광역도시국, 주택건축국, 통합교육국, 통합공향국, 행정재무국 등이 편성됐다.

균형발전부시장 아래는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균형발전실, 재정관리본부, 에너지산업본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 추진단 등이 자리잡는다.

기본사회부시장 산하에는 인권평화담

당관, 성평등정책담당관, 시민주권본부, 청년교육본부, 돌봄복지국, 시민건강국, 포용사회국이 편제됐다.

산업경제부시장 아래로는 노동담당관과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제첨단소재국, 성장투자유치본부, 경제국, 산림청원국이 포함됐다.

청사별 과 단위 조직은 광주청사 67과, 무안청사 56과, 동부청사 21과로 재편한다. 현재보다 광주청사와 무안청사는 각각 2과가 줄어드는 반면 동부청사는 9과가 늘어난다.

상수도사업본부, 해양수산과학원,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동물위생시험소, 광주·전남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기존처럼 직속

기관·사업소·합의제 형태로 운영된다. 감사위원회,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체 행정기관으로 둔다.

기존 실국 운영과 함께 에너지산업본부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를 묶어 관리하고,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추진단, 통합공향국, AI모빌리티국, 우주첨단소재국 등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산업 등을 목표로 하는 부서 운영안도 포함됐다. 광주특별시는 조직개편에 필요한 기구·정원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시의회에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후 청사 직원들과 소통간담회로 의견을 수렴해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시장,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신동훈 충북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통합은 지역성장의 더 큰 힘...성과 나눌 것”

시도지사협의회서 강조...‘여수 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 요청

민선 9기 첫 협의회장에 박찬대 인천시장 선출...국무회의 배석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광역 통합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의회사회의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최초 광역 통합 지방 정부를 이끌고 있는 소회와 통합특별시의 비전을 밝혔다.

민선 9기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 서 민 시장은 인사표를 통해 “전국 최초의

광역 통합 지방정부를 꾸려가며 통합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매일 실감하고 있다”며 “통합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결정하며 필요한 일을 제때 해낼 수 있는 ‘더 큰 힘’”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낼 핵심 기회로 꼽았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에는 지금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전라도 천년의 혼을 흔들어 깨울 거대한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압도적 성장과 시민

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역 통합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 시장은 “통합의 경험을 잘 쌓아 성공한 것은 나누고 어려운 것도 솔직하게 공유하겠다”며 “지방정부가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5일 여수 진도지구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민 시장은 “세계섬박람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치르는 국제행사이자 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와 나누는 자리”라며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개막

식에 참석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1년의 신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박찬대 인천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창립됐다.

협의회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부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통합위원회 등 중앙정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7일 국무회의의 규정이 바뀌면서 국무회의에도 상시 배석할 수 있게 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김대중재단, 김 전 대통령 17주기 추모

오늘 신안군 하의도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재단은 전남광주 전역에 300여 개의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18일에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해 생가 참배와 추모행사를 한다.

이번 추모사업은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지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재단은 이번 17주기가 행정통합으로 하 나가 된 전남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 한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최경주 광주전남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행정구역 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어떤 가치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며 “5·18민주화운동과 김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역사적 산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정체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치 담그고 물놀이도 즐기세요”

21~23일 광주김치타운서 ‘김치·물놀이 피크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물놀이와 김치 체험을 결합한 여름 행사를 마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치타운과 함께하 는 김치·물놀이 피크닉’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시원한 휴식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광주김치타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광주김치타운 광장에는 아의 수영장과 대형 물미끄럼틀이 설치된다. 물놀이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회차별 200명씩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4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물놀이 참가자 가운데 선착순 30명은 참가비 1만원을 내고 3kg 분량의 열무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물놀이와 함께 김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지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광장을 사랑나는 김장대전’을 검색한 뒤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 신청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가을·겨울배추 400ha 작목전환 추진

광주특별시, 해남·진도 농가에 18억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남·진도지역 400ha를 대상으로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지역 농가의 작목전환을 위해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메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마늘·양파·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당 지원 면적은 최대 2ha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8월 관측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출하기(11~12월)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국 가을배추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2.7%, 겨울배추는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추·마늘·양파와 같은 노지채소는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 폭이 크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통합특별시 첫 을지연습...비상대응체계 점검

18~21일 민·관·군·경 참여...전시종합상황실 통합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며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점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비상사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경,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군사연습과 연계해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처음 실시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제31보병사단, 광주·전남 경찰청, 제3함대 사령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지역 주요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에 따라 을지연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시종합상황실도 기존 광주시

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상황실로 통합 운영한다. 다만 실제 상황관리는 광주와 전남 등 권역별로 유지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훈련 첫날인 18일 오전 6시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비상연락망과 비상소집 문자·전화 발송체계 등 비상소집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최초 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작제 편성, 전시항설기구 설치·운영 등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한다. 총무 사태별 조치사항에 대한 토의도 진행한다.

19일에는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한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훈련을 시·구·군별로 실시한다.

한빛원전본부에서는 미확인 드론 공격과 적 특수작전부대 침투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KTX 광주송정역에서는 생물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종합훈련을 각각 진행한다. 민·관·군·경 관계 기관 간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현장 대응 및 협조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예정이다.

20일 오후 2시에는 적가·미사일 공습 상황을 가정한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시설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고, 일부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